

# 마랑놀토수산물시장, 상반기 흥행 대박! 주말마다 '복새통'

개장 후 방문객 3만명 다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무대를 중심으로 옮겨 공연과 식사 함께 가능해져 더 풍성  
반값여행 시즌2 연계 교통·숙박 할인혜택... 놀이시설 추가도

강진군 마랑면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2025년 상반기 '대박 흥행'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관광형 수산물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 4월 12일 개장 이후 6월까지 총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말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 상인들의 매출은 물론 인근 식당, 숙박시설 등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 시장 운영을 위해 스텝데코 포토존, AI 캐릭터 변환 체험, 전복 최대 40% 할인 이벤트, 영수증 이벤트, 전망대 원데이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특히 공연 무대의 위치를 시장 입구에서 시장 중심부로 이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식당이나 점포에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무대가 들어서며 공연과 식사가 공존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는 '시장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마랑미항 토요일음악회는 매주 토요일 열리는 정기 공연으로, 지역 가수 공연, 관광객 참여 노래자랑 등이 어우러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새 무대는 이 음악회의 중심 공간이 되었고, 상인들과 방문객들 모두 "공연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마랑미항 토요일음악회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꿈의 무대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최고 인기 가수인 임영웅과 장민호도 무명 시절 이곳 마랑에서 공연한 적이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랑미항 토요일음악회는 노래를 사랑하고 가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기억되고 있



다. 앞으로도 전국의 신인 및 예비 문화예술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마랑놀토수산물시장 운영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진군은 '반값여행 시즌2'와 연계한 교통·숙박 할인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외부 관광객 유치를 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새로운 물놀이 에어바운스, 특별 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마랑놀토수산물시장

이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공연, 체험,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관광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상반기 동안 보여준 군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는 '반값여행 시즌2'와 연계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마랑을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존 시장 입구 무대는 폐기하지 않고 보조 무대로 유지되며, 앞으로도 두 무대는 탄력적으로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나주소방서, 의용소방대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나주소방서(서장 신항식) 나주시의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온열질환 등 폭염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폭염 취약 시군간 야외 작업자 대상 귀가 유도 및 안전 계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이온음료 및 식염포도당 제공 ▲경로당 등 무더위취약 방문을 통한 폭염 대처 교육 등이다.  
의용소방대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폭염 속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특히 독거노인, 고령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항식 나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와 함께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폭염 특보가 계속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 서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4일에 끝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 이후, 체감 온도 33°C 이상의 폭염과 가뭄이 동반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 농업재해대응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 영광군, 가루쌀 7월 11일·콩 7월 25일까지

수 있다.  
영광군은 예측이 불가능한 이상기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가입비의 3%를 추가 지원하여 보조율 93%(기존 90% → 변경 93%)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 핵심 농정 시책인 '벼 생산조정제 추진'을 위해 영광군에서는 가루쌀과 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가루쌀은 7월 11일, 콩은 7월 25

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의한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을 보전하는 농업수입 안전 보험도 위의 두 품목 모두 동일한 가입 기간에 지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농업 재해가 일상화된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물별 가입 일정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구례군은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화 문의나 종이고지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요금 조회 및 납부가 ▲요금 조회 및 납부 ▲자동이체 신청(계좌, 카

## 구례군, 상하수도요금 전용 홈페이지 운영

다) ▲스마트고지(카카오톡, 문자) 신청 ▲이후 따라 군민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한정호 기자

해당 서비스는 구례군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상하수도>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https://www.gurye.go.kr/waterpay>주소로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장흥군은 지역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산들해랑' 사용허가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장흥군에서 생산한 농림축수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며, 지원자격은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장흥군내에 소재한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등이다.  
'산들해랑'은 '산, 들, 해(바다, 태양)와

## "장흥군 농림축수산물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사용하세요"

함께 자란'이라는 의미를 담아 넓게 펼쳐진 산과 들, 5개 읍면에 걸친 바다, 풍부한 일조량 등이 조화를 이루어 길이 흥할 장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2019년에 공동브랜드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총 23개 업체가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는 품목별 품위관리원 예비심사와 장흥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품질을 신뢰하고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 승인한다.  
사용허가를 받으면 허가기간 2년동안 '산들해랑' 상표를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군에서 집중적인 브랜드 홍보 관리와 포장재 제작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공동브랜드 '산들해랑'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홍보, 품질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 영암군 독천낙지거리, 남도음식거리 공모 선정

전남 영암군의 대표 맛거리 독천낙지거리가 7월 '2025년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도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암군은 총 10억을 들여 내년까지 독천낙지거리 종합안내판 개선, 옥외간판 정비, 포켓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정비에 나선다.  
나아가 공모 선정은 전라남도의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으로 확장 신청도 가능해, 영암군은 낙지요리 경연대회, 거리축제, 관광 홍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연계 추진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독천낙지거리를 월출산국립공원, 월출산기찻길 등 지역 주요 관광자원과 연결한 미식관광코스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과 미식관광코스 개발이 마무리되면 영암을 찾는 방문객들은 지역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둘러보고, 갈낙탕 등 향토음식도 함께 즐기며 체류하는 관광을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김동식 영암군 관광과장은 "독천낙지거리를 월출산의 기와 맛을 담은 명품 관광거리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차별화된 낙지요리 콘텐츠와 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